

출산 · 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과 요구¹⁾

정 미 경(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 호 정(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 종 효(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 태 은(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요 약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과제를 가치교육으로 상정하고, 가치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 교사들의 출산·가족 관련 가치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초·중등 교사의 저출산·고령화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출산·가족 관련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및 학교 현장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가치교육, 저출산·고령화 사회

I . 서론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를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은 다양한 유발 요인이 복합

1)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에 본 연구진이 참여하여 수행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방안 연구’ 중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일부를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응책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과 저출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저출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노동력의 질을 제고하거나, 여성 및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숙희 외, 2005). 반면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은 사회경제적 유발 요인의 해소와 함께 이와 상호작용하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직장 문화 조성, 자녀 양육 비용 감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주택 비용 감소 등을 위한 정책 추진 등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만혼, 독신, 개인만족 등과 같은 가치관 요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가치관 요인의 변화에 대한 대책은 교육을 통하여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고양시키며, 자신이 국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입장에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는 다각적인 교육적 접근을 통해 시도될 수 있으나, 특히 학교교육을 통한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가족계획 방법이 교육을 많이 받은 층에서 먼저 받아들여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점차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침투해 들어간 바 있다는 사실(이해영·권태환, 1978)로 미루어 볼 때도, 학교교육을 통하여 관련 지식이나 행동을 함양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 형성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 정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미래 자신의 직업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준비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갈등을 겪으며, 올바른 해결 방법을 터득하고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알고 도리와 예절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은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미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치지향적인 일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내용 및 교육활동에는 가치교육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교육은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문기, 2003).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가치교육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의 상반된 입장이 있다(정범모, 1992). 학교는 가치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입장은 가정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비해 학교환경은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공적인 기능으로서의 학교교육이 한 개인에게 특정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적 자유와 사적 세계를 침범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학교의 가치교육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가치는 인간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정의적·신체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위해서 가치교육은 필요하며, 가치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 내외의 영향을 받아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지도를 통한 가치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가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학교교육 교육과정 내용에서 가치교육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학교 및 학급 풍토, 교사의 가치나 기대,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는 학생들의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치가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가치교육은 대개 두 가지 방향을 목표로 한다. 하나는 가치습득 및 내면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가치판단능력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습득 및 내면화 또는 가치형성교육은 전통적인 규범 윤리학에서 다루는 객관적인 가치들을 교사 중심의 가치전달 방식에 의해 강화하거나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교육의 형태는 전통적인 인격교육과 유사하다. 반면에 Kohlberg나 Metcalf와 같이 현대적인 합리주의가 주장하는 가치교육의 목표는 현대적인 메타 윤리학에서의 논리적인 분석 및 검증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 중심의 가치탐구방식에 의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선택·결정하게 한다(최문기, 2003).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통합을 지향한다. 즉 학생들이 가치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신장시키는 가치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종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교육활동의 목적은 항상 사회적 문제 자체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지식과 이해보다 그러한 지식과 이해에 기초하여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의적 영역의 특성들 곧 가치, 신념, 태도 등을 갖추게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김재득, 1997; 주성현, 2002에서 재인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선으로 여겨지는 인격교육과 유사한 가치에 대하여 가치습득의 가치교육을 지향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에는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상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가는 과정이 포함되어야(주성현, 2002)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과제를 가치교육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가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치

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출산·가족 관련 가치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초·중등 교사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둘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 측면에서 볼 때의 현재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출산·가족 관련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및 학교현장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Ⅱ. 선행연구 분석

1.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의 원인과 실태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이미 유래 없는 1.16명의 출산율을 넘어서 2005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는 1.08명으로 저출산 형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구대체율인 2.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인 1.60명(2002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2006년 7월 1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5%로 2005년 9.1%에 비해 0.4%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6년 6.1%에 비해서는 3.4% 증가하였다(통계청, 2006b).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서도 본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1984년 출산율이 1.76명으로 떨어져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정부의 출산억제책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은 30여 년간 산아제한 기조를 유지하였다. 정부는 1996년 신인구 정책을 수립하면서 비로소 인구억제정책을 폐지하였다(안명옥, 2004).

이러한 저출산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손승영(2005)은 1차적 원인으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자녀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임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출산조절 욕구를 현실화시켰으며, 2차적 단계에서의 출산을 저하는 가치관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저출산 현상은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며,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소득 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사회·직장 요인이 거론될 수 있다(Willem, 2006).

첫째, 소득불안이 출산을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산업화

의 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경제 행위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출산 및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부모들은 출산과 양육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출산을 추이는 종교를 포함한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전통적으로 엄격한 성분업적인 역할 규범이 강조되어 온 문화권에서는 남성은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나 사회도 여성의 사회진출보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체계 등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들 문화권에 속한 국가 대부분이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일-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 참여율 및 출산율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OECD, 2005). 결국, 국가적 대응 노력에는 여성의 자아실현 추구와 결혼·출산·양육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의식 개혁, 사회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취업여성의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

2002년 출산율이 1.17명으로 떨어지자 정부와 언론 및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정부는 2020년의 합계출산율 목표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정하고 저출산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2005년 9월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6년 6월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이 발표되었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 74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이 출산장려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인 규명이나 해결모색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는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젊은이들의 행위 양식이나 가치관에 주목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손승영, 2005).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 대책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한 시기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간파해서

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범국가적 홍보 강화에 따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서구에 비해 자녀와 가족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이 강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관념은 부부들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전통적인 관념이 서서히 깨지고 있으며, 현재 가족형성을 앞두고 있거나 가족형성의 초기에 있는 젊은층에게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즉 아이를 낳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장혜경 외, 2004). 따라서 근본적인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결혼관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시기에서부터 출산 친화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해 개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능은 학교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동기에서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예방하고, 바람직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과 이를 위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의 변화

출산·가족 관련 가치관이란 개인이 출산, 자녀양육,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이러한 출산·가족 관련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는 모든 남녀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결혼관이 점차 약화되어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개인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결혼생활에 만족스럽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또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삼식 외, 2005).

2003년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혼 남녀의 29.1%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두 배 이상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3). 또한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1998년 33.6%에서 2002년 25.6%로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나타났으며(사회통계, 1998-2002), 대학생들도 결혼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유혜숙·정현숙, 2002). 이처럼 미혼 남녀가 부정적인 결혼관을 갖는 것은 결혼이 개인생활을 희생시키고 가족생활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미혼 남녀 외에 초·중등학생의 결혼관을 분석한 결과(이삼식 외, 2006),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학생의 66.5%가 긍정적인 반응(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을 보였으나,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태도는 16.8%에 불과했다. 결혼에 대해 유보적(29.3%)이거나 부정적(1.6%)인 태도도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성적 관계의 조직이자 생물학적인 짝짓기와 생식과정을 통하여 성적 요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사회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사회제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생물학적 관계에 기초한 이러한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의 중요성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가족형성의 방법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김태현 외, 2006).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통계청(2006a)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1983년에는 2.08명을 기록하여 인구대체를 수준 이하로 내려갔고, 이후 한 번도 2.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초·중등학생들의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분석결과(이삼식 외, 2006)를 보면, 상급학교일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비중이 줄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비중이 늘어나, 자녀 필요성의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김태현 외, 2006).

4.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의 방향

우리나라 교육과정 구성에서 나타난 가치 덕목의 양적 변천 과정을 보면,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오면서 전체적으로 가치 덕목의 수가 현저히 줄고 있는데(박용현, 2002), 이는 가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것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정 가치를 주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발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가족 관련 가치교육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에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친화적 가치는 우리 민족의 전통 가치로서 상시 다루어져 왔던 가치 덕목이지만, 출산 관련 가치는 1970년대 이후 산아제한을 지향하는 인구교육과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가

치를 형성하도록 주입교육의 성격을 나타내었던 적도 있다.

왕석순, 전미경(2006)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목적을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생애 설계교육’으로 설정하고, 하위 목표를 ‘개인의 삶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 ‘결혼과 가족의 가치의식 함양’, ‘양성의 평등, 세대 간 협동이 기반이 되는 가정생활의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왕석순, 전미경(2006)이 제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의 목표도 상술한 교육목적과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즉 출산·가족 관련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였을 때와 하지 못했을 때의 미래 사회를 예측하며,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촉발시킨 여러 가지 사회제도, 고용제도 및 문화,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출산, 가족 관련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설문조사는 전국 131개 학교의 초·중등학교 교사 1,136명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31개 초등학교에서 5~6학년 담임을 포함하여 195명, 47개 중학교에서 455명, 실업계를 포함한 54개 고등학교에서 486명으로 총 1,136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2. 표본 추출 및 크기

표본 추출은 다단계 집락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추출된 표본 학교에서 선택된 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 교과를 담당하므로 담임 중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중등학교는 1~3학년 담임과 도덕, 사회, 실과(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를 선정하였다. 조사결과 1개 학교를 제외한 총 131개 학교에서 1,136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교사의 인적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조사 대상 교사

항목	구분	교사	
		사례 수	%
학교급별	초등학교	195	17.2
	중학교	455	40.1
	고등학교	486	42.8
성별	남자	467	41.1
	여자	668	58.8
	무응답	1	0.1
담당 교과	중등 주 교과 담당 : 도덕, 사회, 실과(기술·가정)	690	60.7
	중등 기타 교과 담당	253	22.3
	초등 교사	175	15.4
	무응답	18	1.6
교직경력	0~5년	259	22.9
	6~10년	215	18.9
	11~20년	383	33.7
	20년 이상	279	24.2
출산 경험	유 경험	797	70.2
	무 경험	336	29.6
	무응답	3	0.2
합계		1,136	100.0

여기서 ‘출산경험 여부’는 남녀 교사 모두 임신·출산 과정을 거쳐 자녀를 가지고 양육한 경험이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나 출산과정 없이 입양을 해서 양육한 경우는 출산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3.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중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실과(기술·가정) 교사 8명과 초등학교 교사 2명과의 집단 면담을 통해 초·중등학교에서 출산·가족 관련 가치교육과 관계가 있는 교과 및 출산·가족 친화적 교육내용의 현황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 조사 내용

교사 인식에 대한 하위 영역	문항 내용
저출산·고령화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의 심각성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 내용 개선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가치교육 강화의 필요성
출산(인구포함) 관련 교육내용 실태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의 적합성 학습자 흥미에의 적합성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반영 정도 분량의 적절성 사진, 삽화, 도표 내용의 적절성 출산 관련 수업 시 애로사항
가족 관련 교육내용 실태	가족친화적 가치관 형성에의 적합성 학습자 흥미에 대한 적합성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반영 정도 분량의 적절성 사진, 삽화, 도표 내용의 적절성 가족 관련 수업 시 애로사항
개선 방향	출산 관련 가치교육에 적절한 수업시간 가족 관련 가치교육에 적절한 수업시간 출산친화적 가치교육을 처음 실시하는 적정 시기 가족친화적 가치교육을 처음 실시하는 적정 시기 출산 관련 교육내용의 개선 방향 출산 및 가족친화적 가치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점 출산 및 가족친화적 가치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에서 필요한 점

여기서 ‘출산·가족 관련 가치교육’이란 개인이 출산, 자녀양육,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절대 선으로 여겨지는 가치에 대한 가치습득교육을 말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전체 반응을 분석하였고, t-test, 교차분석, ANOVA와 MANOVA를 이용하여 학교급, 교사 성별, 출산·가족 관련 교과 여부, 출산경험 여부 등에 따른 교사의 반응차이를 분석하였다. ANOVA나 MANOVA 분석의 경우, 전체 모형이 유의할 경우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내용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교급, 교사 성별, 교과목, 출산경험 여부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의 심각성, 학교교육 내용 개선의 필요성, 가치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심각성, 개선의 필요성, 강화의 필요성과 교직경

력 사이의 관련성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할 때 ‘출산·가족 관련 교과 여부’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전 교과를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 교과 교사로 포함하였으며, 중등학교 교사는 도덕, 사회, 가정을 담당하는 경우 관련 교과로, 그 외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비관련 교과로 구분하였다. 출산 및 가족 관련 교육내용 실태 분석에서도 학교급, 교사 성별, 교과목, 출산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는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실태 분석 내용과 교직경력 사이의 관련성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출산 및 가족 관련 수업 시에로서항은 명목척도이므로 학교급이나 교과목, 출산경험 여부 및 교직경력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선방향 중에서 출산이나 가족 관련 가치교육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선택한 수업시간이 학교급, 교직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학교급이나 교사 성별, 교직경력에 따라 출산이나 가족친화적 가치교육을 처음 실시하는 적정 시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출산 및 가족 관련 교육내용의 개선방향과 가치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학교급이나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5점 척도의 설문 문항 중 ‘매우 필요하다’, ‘매우 적합하다’, ‘매우 심각하다’는 100점으로, ‘필요한 편이다’, ‘적합한 편이다’, ‘심각한 편이다’는 80점으로, ‘보통이다’는 60점으로,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는 40점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20점으로 환산해서 응답점수로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교사 인식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학교교육 내용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ANOVA 검증 결과, 전체 모형이 유의한 경우에는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단 성별이나 출산경험 여부와 같이 2개 변인인 경우는 사후검증 없이 전체모형의 유의성을 전제로 평균차이를 기술하였다.

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 인식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교사 점수는 87.68($SD=12.93$)이었다. 교사의 특성에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여자교사보다 남자교사가,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있는 교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경력이 길수록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식 수준이 높았다($r=.14$, $p<.001$). 반면 학교급이나 교과목 구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각성 인식

집단 구분		평균(표준편차)	<i>F</i>
학교급	초등학교	86.97(13.03)	.43
	중학교	88.00(12.35)	
	고등학교	87.65(13.43)	
성별	남자	89.72(12.86)	10.20***
	여자	86.26(12.81)	
교과목	도덕	86.32(13.24)	1.09
	사회	88.02(12.60)	
	가정	88.76(13.23)	
	기타	87.67(12.84)	
출산경험	있음	89.11(12.83)	32.91***
	없음	84.35(12.61)	

*** $p<.001$

나. 학교교육 내용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교사들은 84.74($SD=12.70$)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소재지나 교과목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여자교사보다 남자교사가,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있는 교사가, 또한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r=.12$, $p<.001$).

〈표 4〉 학교교육 내용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

집단 구분		평균(표준편차)	F
학교급	초등학교	84.72(11.94)	.25
	중학교	84.44(12.75)	
	고등학교	85.02(12.95)	
성별	남자	86.04(12.44)	4.24*
	여자	83.83(12.81)	
교과목	도덕	86.32(12.01)	2.15
	사회	85.03(12.73)	
	가정	84.98(13.23)	
	기타	83.16(13.07)	
출산경험	있음	85.55(12.68)	5.62**
	없음	82.80(12.57)	

* $p<.05$ ** $p<.01$

다.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 교육의 필요성

〈표 5〉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 교육의 필요성 인식수준

집단 구분		평균(표준편차)	F
학교급	초등학교	88.31(13.11)	.01
	중학교	88.19(13.28)	
	고등학교	88.19(13.15)	
성별	남자	89.08(13.09)	2.17
	여자	87.59(13.22)	
교과목	도덕	88.44(13.29)	1.33
	사회	87.07(13.61)	
	가정	88.96(13.09)	
	기타	88.93(12.51)	
출산경험	있음	89.37(12.53)	11.05***
	없음	85.42(14.26)	

*** $p<.001$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학교에서 출산이나 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교사들은 88.21($SD=13.18$)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필요성 인식수준은 학교급이나 교사 성별, 담당 교과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교직경력이 많거나($r=.12$, $p<.001$), 출산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2. 출산(인구포함) 및 가족 관련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 인식

출산 및 가족에 관한 교육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과서 내용의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의 적합성, 학습자 흥미를 반영한 정도,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반영 정도,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서 내용량의 적절성, 사진·삽화·도표 등의 적절성, 출산 관련 수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ANOVA 검증 결과, 전체 모형이 유의한 경우에는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단 성별이나 출산경험 여부와 같이 2개 변인인 경우는 사후검증 없이 전체모형의 유의성을 전제로 평균차이를 기술하였다.

가.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표 6〉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집단 구분		출산		가족	
		평균(표준편차)	F값	평균(표준편차)	F값
학교급	초등학교	56.88(16.87)	.64	66.27(13.66)	16.21***
	중학교	59.44(18.11)		64.43(15.49)	
	고등학교	58.57(16.32)		57.95(16.22)	
성별	남자	59.07(18.40)	.13	62.35(15.78)	.01
	여자	58.50(16.37)		62.51(15.72)	
교과목	도덕	60.00(17.08)	3.09*	64.57(16.37)	8.15***
	사회	56.39(16.35)		56.59(16.03)	
	가정	61.69(17.08)		61.43(15.48)	
출산경험	있음	58.66(17.86)	.75	62.43(15.86)	.23
	없음	58.94(15.28)		62.39(15.45)	

* $p < .05$ *** $p < .001$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58.67($SD=17.13$) 정도로 평가하였다. 학교급, 교사 성별, 출산경험 여부, 교직경력에 따라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인식 수준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가르치는 교과목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가정이나 도덕 교과보다 사회과 교사가 교과서 내용이 더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교과서 내용이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 데 어느 정도로 적절하다고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62.44($SD=15.72$)만큼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급과 담당 교과에 따라 교사들의 인식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보다 고등학교 교사가, 도덕과나 가정과 교사보다 사회과 교사가 더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교사 성별이나 출산경험 여부, 교직경력에 따라서는 적절성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나. 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출산 및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은 53.09($SD=15.53$) 정도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학교급이나 교사 성별, 출산경험 여부, 교직경력에 따른 적합성 인식 수준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담당교과별로는 전체 모형 수준에서는 유의했으나 사후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7〉 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집단 구분		출산		가족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학교급	초등학교	51.69(15.34)	.38	62.37(15.43)	16.09***
	중학교	53.24(15.03)		56.51(13.67)	
	고등학교	53.42(16.07)		53.87(14.26)	
성별	남자	52.40(15.93)	.65	57.03(14.24)	.67
	여자	53.53(15.31)		57.05(15.03)	
교과목	도덕	51.53(16.15)	3.80*	56.09(15.89)	2.06
	사회	52.29(15.12)		53.02(12.41)	
	가정	56.46(14.83)		56.00(13.18)	
출산경험	있음	52.82(15.58)	1.41	57.47(14.43)	.82
	없음	54.04(15.46)		56.02(15.42)	

* $p<.05$ *** $p<.001$

가족 관련 교과서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정도는 57.01($SD=14.73$)로 나타났다. 가족 관련 내용의 적합성 수준에 있어서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적합성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교사 성별이나 교과목, 출산 여부나 교직경력에 따라서는 적합성 인식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다.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반영 정도에 대해 교사들은 53.72($SD=16.60$)로 평가하였다. 반영도에 대한 인식차이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고등

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들은 출산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교사 성별, 교과목, 출산 여부나 교직경력에 따른 반영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56.36 ($SD=16.04$)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급이나 담당교과, 출산경험 여부, 교직경력에 따라 반영도 인식 수준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교사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자보다 여자교사가 반영도를 더 낮게 평가하였다.

〈표 8〉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집단 구분		출산		가족	
		평균(표준편차)	<i>F</i>	평균(표준편차)	<i>F</i>
학교급	초등학교	49.23(13.94)	4.96**	57.63(16.27)	1.23
	중학교	53.05(16.39)		56.78(15.77)	
	고등학교	55.80(17.31)		55.11(16.12)	
성별	남자	54.20(17.31)	.45	58.74(16.76)	7.76**
	여자	53.49(16.21)		54.96(15.44)	
교과목	도덕	55.12(17.06)	1.62	56.38(17.35)	.12
	사회	56.00(17.53)		55.50(15.66)	
	가정	52.62(15.78)		56.29(14.71)	
출산경험	있음	53.49(16.56)	1.26	56.88(16.13)	1.61
	없음	54.57(16.80)		55.34(15.82)	

** $p<.01$

라.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내용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분량인지에 대해 교사들은 평균 47.95($SD=13.62$) 정도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인식수준은 학교급, 교사 성별, 교과목, 교직경력, 출산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족 관련 내용의 경우, 교사들은 55.82($SD=15.01$)로 평가하였다. 적절성 인식 수준에 있어서는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교사 성별, 교과목, 출산경험 여부나 교직경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9〉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집단 구분		출산		가족	
		평균(표준편차)	<i>F</i>	평균(표준편차)	<i>F</i>
학교급	초등학교	46.67(11.01)	.54	58.95(14.15)	5.65**
	중학교	47.83(13.67)		55.85(15.99)	
	고등학교	48.49(14.36)		53.69(14.31)	
성별	남자	47.77(13.68)	.06	55.95(15.45)	.05
	여자	48.08(13.62)		55.74(14.78)	
교과목	도덕	46.28(14.47)	1.23	57.19(15.82)	2.23
	사회	49.12(14.22)		54.26(14.62)	
	가정	48.15(13.57)		53.43(15.07)	
출산경험	있음	47.59(13.18)	1.09	55.57(15.14)	.25
	없음	49.01(14.73)		56.36(14.83)	

** $p < .01$

마.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교사들은 적절성 정도를 51.80($SD=15.24$)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반응 비율은 학교급, 교사 성별, 교과목, 출산경험,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0〉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

집단 구분		출산		가족	
		평균(표준편차)	<i>F</i>	평균(표준편차)	<i>F</i>
학교급	초등학교	52.21(14.92)	.34	57.11(15.34)	9.23***
	중학교	51.13(14.46)		53.11(13.90)	
	고등학교	52.27(16.04)		50.67(13.89)	
성별	남자	52.02(15.56)	.05	53.87(14.81)	.70
	여자	51.71(15.08)		52.84(14.28)	
교과목	도덕	51.86(14.18)	.70	52.34(13.77)	.77
	사회	52.88(15.90)		52.40(14.83)	
	가정	50.85(15.21)		50.57(12.79)	
출산경험	있음	51.42(15.43)	1.47	54.01(14.32)	2.12
	없음	52.98(14.82)		51.36(14.14)	

*** $p < .001$

가족 관련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에 대해 교사들은 53.21 ($SD=14.48$)점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적절성 평가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적절성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교사의 성별이나 교과목, 출산경험 여부나 교직경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출산 및 가족 관련 수업의 애로사항

출산 관련 수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많은 교사(41.7%)가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다’(34.5%)고 응답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애로사항으로 교사 관련 요인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13.1%의 교사는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달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라고 대답하였으며, 5.1%는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응답하여 학생 대상의 가치교육에 앞서 교사 연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수의 교사(41.0%)가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다’를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34.9%)고 응답하였다. 또한 출산과 마찬가지로 가족 관련 수업의 애로사항으로 교사 관련 요인을 선택한 교사도 일부 있었다. 12.7%의 교사는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달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당황스럽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2%는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애로사항으로 선택한 반응 비율은 교직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46.12, p<.001$). 교직경력이 적은 교사는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다’고 응답하거나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경력이 많은 교사는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3.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교사 인식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에 적절한 시간,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 시기, 교육내용의 개선 방향, 교육내용 개선 시 고려사항,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가. 출산 친화적 가치교육에 적절한 시간

조사대상 전체 교사에게 학교교육에서 출산(인구 포함) 관련 가치교육을 어느 시간에 다

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사회과(61.0%), 실과(기술·가정, 60.0%), 도덕과(54.0%)를 선택하였다.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을 선택한 비율은 33.0%였고, 국어과 11.0%, 과학과 9.0%, 외국어 3.0%로 나타났다.

출산 친화적 가치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학교급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보였다($\lambda=.88$, $F=9.00$, $p<.001$). 도덕과를 선택한 경우는 고등학교(50.0%)보다 중학교 교사(59.0%)가 많았다. 사회과의 경우, 중학교 교사(53.0%)보다는 초등학교(65.0%)나 고등학교(66.0%)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 실과(기술·가정)는 초등학교(31.0%)보다 중학교(66.0%)와 고등학교(66.0%) 교사가 더 많이 선택하였다. 요컨대 초등학교 교사는 사회과, 중학교 교사는 도덕이나 기술·가정, 고등학교 교사는 사회나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출산 관련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직경력에 따라서도 출산 관련 수업시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lambda=.95$, $F=2.30$, $p<.001$). 사후검증 결과,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가정시간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나. 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에 적절한 수업시간

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은 어느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도덕(75.0%), 기술·가정(실과, 52.0%), 사회(46.0%)순으로 선택하였다.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29.0%, 국어 14.0%, 과학 4.0%, 외국어 3.0% 등이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 적절한 수업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수업시간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lambda=.87$, $F=9.77$, $p<.001$). 사후검증 결과, 도덕과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고등학교(68.0%)보다 초등학교(77.0%)나 중학교(81.0%) 교사가 많았다. 사회과의 경우, 중학교 교사(35.0%)보다는 초등학교(49.0%)나 고등학교(55.0%) 교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실과(기술·가정)는 초등학교(26.0%)보다는 중학교(54.0%)와 고등학교(60.0%) 교사가 더 많이 선택하였다. 요컨대, 초등학교 교사는 도덕과 사회, 중학교 교사는 도덕이나 기술·가정, 고등학교 교사는 사회나 기술·가정 수업시간을 통해 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교직경력에 따라서도 가족 친화적 수업시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lambda=.95$, $F=2.30$, $p<.001$). 사후검증 결과, 교직경력이 5년 이하인 교사(7.0%)보다 6년 이상인 교사가 국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6~10년, 11~20년, 21년 이상, 각각 16.0%). 또한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들일수록 가정과를 더 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에 적절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 교육시기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 시기에 대하여, 교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45.1%), 초등학교 고학년(38.6%), 중학교(13.0%), 고등학교(3.3%)순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교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chi^2=31.29, p<.001$). 즉, 중학교(41.9%)나 고등학교(45.8%) 교사보다 초등학교(50.8%) 교사들이 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성차에 따라서는($\chi^2=31.44, p<.001$), 여자 교사(50.7%)가 남자 교사(37.2%)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택한 비율에서는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보다 높았다.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시작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교직경력별로 차이를 보였다($\chi^2=23.53, p<.01$). 교직경력 연수가 길수록, 초등학교 저학년에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비율은 낮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선택한 비율은 높았다.

라. 교육내용의 개선 방향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 내용의 개선 방향에 대해 67.9%의 교사들은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개선한다’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다음으로 28.0%의 교사가 ‘저출산의 원인,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한다’라고 대답하였다. 극히 소수의 교사만이 ‘현재 교육내용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1.0%)’ 또는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1.9%)’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교사가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내용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 교육내용을 개선할 때 고려할 사항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을 개선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54.0% 교사는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9.1%)’와 ‘특정 가치가 주입되는 방향을 지양해야 한다(11.0%)’를 선택하였다. 소수의 교사(5.2%)는 교과 간 내용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사항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대부분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44.7%)’와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 교과 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25.2%)’를 선택하여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위한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외에 19.8% 교사는 ‘출산·가족 친화적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여 교사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사 연수의 필요성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8.50, p<.01$). 즉 초등학교(15.4%)나 중학교(16.8%)보다 고등학교(24.3%) 교사가 교사연수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재량활동(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할 지도 자료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등학교(19.4%)보다는 중학교(28.5%)나 초등학교(31.8%) 교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들은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는 내용이나 분량 및 학습자 흥미 수준의 반영 정도가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학교교육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완 지도자료 개발이나 보급, 교사 연수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최근 우리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 안전성이 약화되어 이혼율 급증, 가정 폭력 등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위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과제를 가치교육으로 상정하고,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초·중등학생들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교교육에서 가치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내용뿐 아니라 가치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 내용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교사인식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교사들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

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들은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이 필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경향은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출산경험이 있는 교사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출산 및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출산과 관련한 교육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교사들은 대체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사진·도표의 적절성 등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교과서의 삽화나 사진, 도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긍정적 평가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보조 지도 자료의 부족과 진부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가족 관련 교육내용 실태에서는 절반 이상(53.9%)의 교사가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가족 관련 학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사진·도표의 적절성)에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우세하였다. 특히 학교급이 높은 교사이거나 도덕, 사회, 실과(기술·가정) 담당 교사들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애로사항은 보조 지도 자료의 부족과 교과서 내용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업시간, 교육시작 연령, 개선 방향, 개선 시 고려사항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사회, 실과(기술·가정), 도덕시간에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가치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출산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출산 관련 내용은 제한된 교과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주로 지식 전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성평등이 실현된 가정생활 및 직업생활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우며, 생애 주기에 있어 각 시기의 발달과업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교육은 학교교육에서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 외 활

동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다.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교과 교육목표에 따라 출산·가족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룰 수도 있고, 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교과 외 활동을 통한 가치교육은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에도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의 방향은 가족 친화적 가치나 양성평등의 실천, 다양성의 이해와 같은 가치에 대한 습득 및 내면화와 가치 대립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을 지향해야 한다. 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거리를 제시하여 감성을 자극하고 체험을 장려하여 도덕적 내면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 자료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면서 시대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넷째, 성별이나 연령, 가족 구성 등 학습자의 특성, 교과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 개발 시 당위성만을 강조하면 식상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해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규범 및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의 성격과 교과 내용 요소에 따른 수업 방법이 다소 다르겠으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현상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가치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감정,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또는 학생 주도적인 수업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생에게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미화해서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사회나 국가와의 관계, 가족 갈등과 화해 등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자신 또는 주변의 일상생활의 예를 가지고 접근하되, 식상한 내용이 아닌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학습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 관련 있는 다양한 영화나 비디오 자료의 제시와 역할극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체감적 효과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직경력, 성별, 출산경험 여부, 담당교과 등 교사 특성에 따라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교직경력이 적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연수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연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뿐 아니라 출산·가족 친화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 방법의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과학습,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학교교

육 활동 전반에서 학교급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교사연수 내용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성일(2000). 태도 변화의 원리에 의한 가치관 교육. 황정규(편). **현대교육심리학의 쟁점과 전망**. 교육과학사.
-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득(1997). **초등학교에서 환경보전 의식교육에 대한 효율적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 김태현 외(2006).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7-03.
- 박용현(2002). **가치 교육의 변천과 가치의식**. 서울대학교출판부.
- 손승영(2005).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가족 관계의 변화. **동덕 여성연구**, 10, 5-21.
- 안명옥(2004).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04년 국정감사 자료, 2004, 10.
- 왕석순, 전미경(2006).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과서 개편 지침 자료 개발**. 보건복지부.
- 유혜숙, 정현숙(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이삼식 외(2005). **인구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30(3).
- 이삼식 외(2006).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7-02.
- 이해영·권태환(편)(1978). **한국 사회 인구와 발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45-48.
- 장혜경 외(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 정범모(1992).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 주성현(2002). 초등학교 환경가치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인문사회교육연구**, 5, 161-195.
- 최문기(2003). 가치 교육의 이론적 모형화. **교육논총**, 2(7), 325-351.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숙희, 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5. 12.
- 통계청(1998-2002). **사회통계**.
- 통계청(2006a).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2006b). 2006 고령자 통계.

OECD(2005). *OECD Fact book*.

Willem, A. (2006. 9).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 자료집.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13-14.

• 논문 접수 : 2007년 4월 14일 / 수정본 접수 : 2007년 5월 15일 / 게재 승인 : 2007년 5월 25일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er Awareness and Need of Birth and Family Friendly Value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Mi-Kyung Chung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yo-Jung Park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Jong-Hyo Park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ae-Eun Kim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o tackle growing trend of aging society and low birth rate, it is important for the youth to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s marriage and birth by encouraging them to avoid excessive individual values and promote family values. During the course, school education plays a critical role, since one usually starts to attach values to family and community in elementary school and builds up responsibility for society in middle and high schools.

To improve of birth and family friendly value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survey has been carried out to teachers.

This study composed of three parts.: According to the survey, (1) teacher awareness of status and causes of the ongoing trend of aging population and low birth rate was analyzed (2) and teacher awareness and need of birth and family friendly value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were analyzed (3) we suggested ways to improve of birth and family friendly value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line with the ongoing trend.

Key Words : birth and family friendly values, value education,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